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표준협력 강화한다

- APEC 표준·적합성 위원회에서 「APEC AI 표준포럼」 신설 제안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18개 회원국의 1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표준·적합성 위원회(SCSC) 총회」를 개최하여 AI·수소경제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인증 활용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SCSC는 회원국 간 표준·인증 절차 차이에서 비롯되는 무역·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하는 APEC 산하 위원회로, '25년 APEC 정상 회의의 한국 유치를 계기로 SCSC 의장국을 한국이 수임함에 따라 SCSC 총회 및 분야별 워크숍 개최 등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중점 안건으로 △표준·인증 규제개선,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차세대 표준전문가 양성 등 표준·적합성 관련 회원국별 정책들을 공유하는 한편, △산업 AI 활용·확산을 지원하는 표준의 역할, △수소·연료전지 표준·인증 시스템 등 첨단산업분야 표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표원은 APEC 회원국 간의 AI 분야 국제표준화 공조, 인증체계 공동 연구 등을 위한 AI 표준·인증 상호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AI 표준포럼」의 신설을 제안하였고, 첫 단계로 올해 8월에 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아태지역의 표준협력은 글로벌 표준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략 자원이다”라며, “앞으로도 「APEC AI 표준포럼」 운영 등 APEC 회원국 간 표준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 첨단산업 국제표준 성과 제고를 위한 우호국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표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응로 (043-870-5350)
	국제표준협력과	담당자	연구사	김효중 (043-870-5316)

□ **조직 개요**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1989년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출범
 - * (회원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미국,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페루, 러시아, 베트남
-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위해 예산, 경제, 무역·투자 등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하위에 소위원회 및 회의체·포럼 등을 운영 중
 - 국표원은 무역투자위원회(CTI)^① 산하, 표준적합성소위원회(SCSC)^② 및 화학대화(CD)^③ 참여 중
 - ① (CTI-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추구
 - ② (SCSC-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표준 및 적합성 절차 차이에서 비롯되는 무역·투자 애로 해결을 목표로 '94년 설립된 소위원회
 - ③ (CD-Chemical Dialogue) 아·태 지역 화학산업이 당면한 과제 해결 논의·협의

□ **회의 운영 체계**

- '93년 미국에서 첫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년 회원국 내 의장 수입을 통해 정상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개최
 - 한국은 '05년 첫 APEC 의장국을 수입하였으며, '25년 두번째 APEC 의장국 수입* 하여 회의 개최 예정
 - * ('21)뉴질랜드 → ('22)태국 → ('23)미국 → ('24)페루 → **(25)한국**
 - APEC 의장국은 장관회의, 고위급회의, 각종 산하 회의체 의장직 수행, 회의 제반 사항 등 준비 필요

※ **APEC SCSC(표준적합성소위원회)**는 시행세칙(ToR)에 따라 **APEC 개최국이 의장국 수입** → '25년 SCSC 의장, '24년 및 '26년 부의장 역할 수행